

삼복(三伏)과 백중놀이

강 욱
자유기교가

세시풍속은 해마다 그 계절, 그 날이 되면 반복되는 민속행사를 뜻한다. 한국의 세시풍속(歲時風俗)은 한국의 기후, 토양 등 자연환경과 무(巫), 유(儒), 불(佛), 도교(道敎)가 혼합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화를 구성하였고, 농경생산(農耕生産)의 기초 위에 의식주의 관습이 세시풍속으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옛 사람들은 과연 더위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궁금해 진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 큰 나무숲을 찾아가 바람과 맑은 공기를 쐬는 산림욕, 차가운 계곡 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濯足), 또한 돛자리, 죽부인, 모시옷 등으로 무더위를 켜었다.

여름철의 계절식으로는 개장국(보신탕)과 인삼, 대추, 어린 병아리를 넣은 삼계탕을 즐겨 먹었으며 국수, 물김치, 오이냉미역국,

상추, 부추 등 신선한 야채를 많이 섭취하며 몸을 보했다. 한편으로 옛 사람들은 더위극복을 정신적 안정에서 찾기 위해 시원한 장소에서 명상과 서예, 음악, 창작 등으로 운치와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 또한 농사일에 지친 몸을 탁배기 한사발에 이웃과 훈훈한 정(情)을 담아 나누며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다.

삼복(三伏)은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을 일컫는다. 초복은 하지(夏至) 후 세 번째 경일(庚日)이며, 중복은 네 번째 경일이고 말복은 입추(立秋) 후 첫 번째 경일이다. 복자가 붙은 날은 매우 날씨가 무덥다 하여 ‘삼복더위’라고 말한다.

복날의 개장국(보신탕)에 관한 옛 문헌을 살펴보면 《동국세시기》에 “개를 잡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개장이라 한다. 사람의 식성에 따라 다르지만, 죽순과 깻잎, 마늘, 풋고추, 들깨, 생강, 후추가루, 들기름

등을 섞어 맵게 땀을 철철 흘리며 먹는다”라고 써어 있다. 거기에 대개의 경우 소주 몇 잔씩을 곁들여 먹으니 땀을 비오듯 더 흘리고, 이것을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 하여 복더위를 잊고 쫓아내는 비법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복날이 오면 팔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 식욕을 돋우기 위해 밀전병을 부쳐 먹기도 했다. 또 수박을 온 식구들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먹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동물애호 정신에 따라 이제 복날이 오면, 보신탕보다는 영계탕이나 삼계탕으로 보신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음력 7월 7일은 옛날부터 칠석(七夕)이라고도 하고, 칠석절(七夕節)이라고도 한다. 지방과 가정에 따라서는 칠석제(七夕祭)를 올리거나, 절(寺)의 칠성각에 가서 불교의식에 따라 공양칠배(供養七拜)하는 풍습도 있으며 작은 명절로 쳐 왔다. 칠석날 저녁에 소년들은 견우성과 직녀성에 대한 시문(詩文)을 짓고, 처녀들은 견우성과 직녀성에게 바느질 솜씨가 늘도록 빌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온다.

칠석에 대한 몇가지 설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지상에 있는 까치들이 전부 하늘의 은하성(銀河星)에 모여 저쪽의 견우(牽牛)와 이쪽의 직녀(織女)가 서로 만나 그리웠던 회포를 풀고, 정담을 나눌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오작교(烏鵲橋)이다. 이 오작교 위에서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 애뜻한 정담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래서 칠석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 둘이 만나 기뻐서 흘

리는 눈물ियो, 다음 날 새벽에 비가 오면 이별의 슬픈 눈물이라고 한다.

전설이지만 실감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농경사회 시대, 밭 갈고 길쌈하는 두 남녀의 지극한 사랑을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운명으로 처리한 세속적인 전설이다. 자유연애의 전성기인 현대의 청춘 남녀에게는 다소 저항감이 가고, 납득이 안가는 설화로 비춰지지만,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는 애뜻한 사랑은 한 편의 동화처럼 아름답다.

칠석날의 세시풍속은 옷을 말리는 풍습(폭의:曝衣)과 책을 말리는 풍습(책서:灑書)이 있으며 지금도 그러한 일은 전해내려오고 있다. 긴 장마철이 지나 습기에 찼던 책과 의복을 말리고 소독해 두는 일은 지극히 과학적인 생활방식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백중(百中)은 음력 7월 15일로 백중(百種), 중원(中元), 또는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백중은, 이 무렵에 과실과 소채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백가지 곡식의 씨앗(種子)을 갖추어 놓았다 하여 유래된 명칭이다. 불가에서는 7월 중원(보름날)에 승려들이 재를 올리고 불공을 드리는 명절로 삼고 있다.

백중 날 쯤이면 백과(百果)가 무르익는 때이다. 승려와 신도는 물론 일반 백성들이 이 날 달밤에 망친(亡親)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술·음식·과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 날을 망혼일이라고 한 것이다.

지금은 머슴제도가 없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백중은 머슴들의 즐거운 명절이기도 했다. 농가에서는 백중날이 되면 농사짓기에 수고하였다 하여 머슴을 하루 쉬게 하고 돈을 주었다. 대개 머슴들은 장(場)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사먹고 물건도 사며 흥에 취하여 한판 논다. 그래서 백중장(百中場)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백중장은 장꾼들이 많고 구매가 많은 장이다. 취흥에 젖은 농군들은 농악을 치면서 하루를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씨름판이 벌어져 흥을 돋구었다. 장터에는 흥행단이 들어와서 활기를 띠기도 했는데, 이러한 백중 명절은 중부 이남 지방에서 특히 성대하게 펼쳐졌다.

‘밀양백중놀이’는 밀양 땅에 전해오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무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되어 있다. 힘겨운 세 벌 논매기를 끝내고 백중날, 곧 음력 칠월 보름을 앞뒤로 한 용날에 동네 머슴들이 모여서 벌인 놀이이다. 양반들에게 시달림을 받던 이들이 갖가지 불구자로 꾸미고 나와 양반들의 물

인정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익살 넘치는 춤과 해학으로 풍자한 것이다.

또한 이 날은 그 해에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삿갓을 씌우고 소에 태워 마을을 돌며 위로해 주었다. 그 모습이 장관이라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을 지르고 박수를 쳐주었다. 이 때야말로 머슴은 주인 된 기분, 왕이 된 기분이었다. 이와 같이 백중 행사는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하는 농군의 잔치로서 이것을 ‘호미씻기’라고도 말한다. 이 때를 전후하여 호미에 묻었던 흙을 깨끗이 씻고, 망가진 것은 대장간에 가서 잘 수리해 다가 집에 걸어 놓는다.

주인은 하인(머슴)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 한 식구처럼 토닥이고, 하인은 자기일 이상의 정성으로 주인집 일을 돌보아 주는 풍습, 이것이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아름다운 한국의 미풍양속(美風良俗)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



민속문화

민속문화

— 100 —